

유교를 리용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

정 윤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흔히 인민들을 기만하고 피착취근로대중이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종교를 많이 리용하고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도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거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리용하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1권 295페이지)

일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독점적인 식민지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썬, 백년숙적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옛 풍속과 습관을 존중》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밑에 유교를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리용하는것을 식민지정책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삼았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유교보호정책》을 표방하여나선 목적은 조선의 민족문화전통을 존중하는듯 한 환상을 퍼뜨려 인민들의 환심을 사며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민의 사상정신생활을 보수적인 봉건사상과 봉건적생활양식의 울타리안에 가두어두는것을 통하여 진보적인 사상이나 반일사상이 전파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식민지통치를 쉽게 하여보려는 데 있었다.

이로부터 일제는 유교를 《장려》해야 할 《가치관》이라고 떠벌이면서 이것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가 유교를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음흉한 기도는 《종교는 그것이 불교이든 유교이든 그리스도교이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일반이 령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향상되는것을 그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의심할바없이 국가가 희망하고있는 지배의 목적을 돕게 될것이다.》라고 발표한 성명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수단으로 유교를 리용하는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데는 유교 그자체의 특성과 함께 조선봉건왕조시기 유교가 우리 나라에서 지배적인 종교로 되어 사람들속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있다는 타산에 기초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조선인은…오랜 유교의 룰리적인 가르침을 추구하도록 장려될 것이다. 그들은 이 가르침의 아래서 몇세기에 걸쳐 생활해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제 문제를 그 가르침에 기초하여 생각한다. 그로부터 룰리적인격의 건전한 발달은 달성되지 못했던것이다.》라고 하면서 유교를 리용하여 조선인민의 반일정신을 무마시키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무엇보다먼저 일제는 조선의 유교상층인물들을 회유기만하여 그들이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적극 지지하도록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한일합병》후 일제는 유교도들의 행동이 《충량한 신민의 규범으로서 존경된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9 811명의 유교도들과 매일 유교의 도덕을 지켜왔다고 하는 3 209명의 유교신자들에게 일본국왕의 《은사품》을 수여하는 기만극을 연출하였다.

일제가 이와 같은 기만극을 연출하게 되는데는 결코 유교도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

들을 회유기만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순응하게 하려는데 그 진목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일제는 성균관을 개편하여 경학원을 조작하고 조선사람들속에 현실도피와 무저항주의를 주입시키는 수단으로 리용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조선봉건왕조 500년동안 《국학》으로 지정보호되어왔으며 이 시기에도 상당한 세력을 이루고있으면서 사회력사발전에 보수와 침체, 나약과 무기력을 조성하는 영향을 끼친 유교가 설교한 봉건적인 료리도덕규범을 보존, 조장할 목적으로 1911년 6월 17일 경학원규정을 제정하고 유교를 가르치던 중앙대학인 성균관을 구식이라고 하면서 경학원으로 개편, 장악하였다.

일제는 경학원에 대제학, 부제학, 제주, 사성 등의 직제를 두었으며 그들을 모두 《조선총독》이 임명하고 통제, 감독하게 하였다.

일제가 경학원을 설립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장악, 운영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것은 《조선총독》 데라우찌가 《경학원은 경학을 강의하고 문묘를 제사하여 풍교덕화》를 촉진하며 《유림을 우대함으로써 인륜을 중하게 여기도록 인심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본지로 한다.》라고 떠벌인데서와 일제의 《조선총독부》 고관들중의 하나였던 유계 고따로가 경학원의 개설은 《낡은 사상가들을 만족시키기 위한》것으로서 《새 사상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 없는것》이었다고 고백한데서 그대로 드러났다. 데라우찌놈의 떠벌임과 유계의 고백은 일제가 경학원을 설립하면서 추구한 목적이 봉건유교사상, 도덕 및 풍습을 조직적으로 보존, 조장하려는데 있었다는것을 폭로하고있다.

일제는 경학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국왕으로부터의 《은혜깊은 하사금》이라고 하면서 25만원을 투자하였다.

경학원에서는 공자나 맹자의 도덕적인 설교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하였으며 그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잡다한 종교의식들을 벌려놓았다. 《총독》은 경학원의 개설시 직원들에게 특별히 훈시를 주었으며 학생들에게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인》, 《의》, 《충》, 《효》를 다른 모든 도덕우에 놓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학원의 활동은 수도에 한정되지 않았다. 경학원은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지방의 먼곳에까지 유교도들을 파견하여 유교의 도덕료리와 일본국왕에 대한 《충성》을 설교하게 하였다. 또한 경학원은 유교교리의 선전을 위하여 자체로 잡지를 발간하였다.

일제는 1930년 《총독》령으로 경학원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여 경학원에 소속된 유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명륜학원을 내오게 하였다.

명륜학원의 학생은 나이가 20살이상이어야 하고 그 수는 60명으로 한정되었다. 재학기간은 본과 2년, 전공과 1년 총 3년으로 되었다. 이로부터 9년이 지나 명륜학원은 명륜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본과는 3년으로 늘어났다. 학생수도 90명으로 되었다. 교육내용은 유교정전과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경학원과 명륜대학을 비롯한 유교고등교육기관들을 내오고 그를 통해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위하여 복무하는 친일적인 유교도들을 키워내려고 책동하였다.

다음으로 일제는 지방들에 존재하던 서당 또는 향교를 리용하여 사람들속에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무저항주의사상과 순종의식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수도이외의 도시들에는 서당이나 향교라는 유교시설이 있으며 농촌이나 산골마을에는 한개의 서당이 운영되고있다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선사람들속에 노예적굴종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는 도구로 리용하려

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우리 나라의 유교실태를 얼마나 자세히 조사장악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조선사람들속에 현실도피와 무저항주의사상을 주입시키려고 책동하였는가 하는 것은 《총독부》가 진행한 유교실태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일제가 조선강점초기 진행한 유교정형에 대한 기록자료에 의하면 서당 또는 향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있다.

첫째로, 량반(조선의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이 교사로 있고 자제와 친척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세운것 둘째로, 일반사람들이 학교의 건물을 세우고 교원을 하면서 그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것으로서 각자가 그 비용을 분담하는것 셋째로, 교사자신이 자기들의 집에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창립한것 넷째로, 제정된 건물은 없고 순회교사가 합리적인 장소에서 진행하는 교육 등이였다.

서당 또는 향교의 수는 1911년말에 16 540개로서 교원수는 16 771명, 학생수는 141 604명이였다.

아이들은 이러한 서당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다음 향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각 군에는 보통 한개의 향교가 운영되고있었다.

향교의 학생들은 향교에서 수업을 받은 후 관리로 되는 문관시험을 받게 되였었다. 그리고 각 향교출신의 가장 우수한 학생이 성균관에서 배우고 서울에 가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향교의 문관양성이라는 기능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총독부》가 관심을 돌린것은 이와 같은 향교들을 틀어쥐고 사람들속에 낯고 뒤떨어진 봉건유교도덕을 가르치며 일본국왕에 대한 《충성》을 고취하게 하는것이였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향교의 교장을 조선인으로 하는것을 허락하였지만 지방의 식민지통치기구들이 향교를 장악통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학교의 운영은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들에 의하여 장악되게 되였다.

향교가 소유하고있던 부동산을 통한 수입은 상당히 높았다. 가령 1911년 향교들에서 기록하고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한 수입은 10만 182원이나 되였다.

이것은 일제가 향교의 수입원천을 장악통제함으로써 향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을뿐아니라 이것을 착취의 중요한 공간으로 삼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제는 향교로부터 착취한 자금가운데서 얼마 안되는 몫을 향교의 교육설비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투자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향교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가장하여나섰으며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학을 교육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1916년말까지 700개이상의 서당 또는 향교가 일본어를 교육하게 되였다.

1929년 《총독부》는 서당 및 향교와 관련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첫째로, 서당의 신설 혹은 폐쇄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둘째로, 일본어, 조선어, 산수의 교과서는 총독부가 편집한것을 리용해야 한다. 셋째로, 어린이들이 〈일본국왕〉의 〈충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도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서당과 향교에 대한 일제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교육내용도 조선사람들을 《황국신민화》하는데 복종되게 되였다.

이처럼 일제는 경학원과 향교를 리용하여 조선사람들속에 봉건유교사상과 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총독》 데라우찌자신이 해마다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학원의 《제전》에 직접 참가하여 《승유》와 《덕치교화》를 《표방》하면서 각 부윤 및 군수들에게도 지방의 학교들에서 벌리는 《제전》에 참가하여 같은 태도를 표시하게 한데서 드러났다. 이것은 이후 놈들의 년례행사로 고정되었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봉건적인 유교도덕을 장려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한 유생들의 《협동조직》의 행동규범이었던 《향약》이라는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보급하였다.

일제는 나아가서 근대적인 교육을 시도한 사립학교는 가혹하게 탄압하면서도 촌락의 개인집에서 《계몽편》, 《명심보감》, 《소학》, 《중용》, 《대학》, 《론어》 등 봉건적인 유교의 교리내용을 강의하는 서당만은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다음으로 일제는 《황도유교》라는것을 조작하여 조선인민을 《황국신민화》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황도유교》는 일본국왕에 대한 《충성》과 량친에 대한 효도는 불가분리라는 허황한 교리에 기초하여 일본국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였다. 다시말하여 《황도유교》는 일본국왕에 대한 《충성》을 떠나서 부모에 대한 《효도》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국왕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덕》으로 미화분식하였다.

《황도유교》를 조작한 일제는 조선의 모든 유교도들이 이에 순응할것을 강요하였으며 이들을 통하여 조선인민을 《황국신민화》하려고 책동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이렇듯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유교와 유교도덕을 퍼뜨린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일본국왕과 식민지반동관료배들, 지주, 자본가놈들에게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것을 강요하는데 유리하게 써먹기 위하여 봉건적인 유교교리와 봉건윤리도덕규범을 보존, 조장하려고 책동하였다.

력사적사실은 일제가 유교를 리용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를 실증하여준다.